

i am

KEPCO

20

24

07

july

vol.613

함께 손 잡고

T O G E T H E R

내 일을 향해

나아가다



혼자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땐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의 손을 잡아줄 든든한 동료が 있지 않나요?
이들과 함께라면 마음속 두려움은 이내 사라질 것입니다.

i am



통권 613호 2024년 7월호(월간)

등록번호 나주 마00003

발행일 2024년 7월 10일

발행인 김동철

편집인 백수현

편집 한국전력공사 홍보처 (061)345-3121, 5

주소 (우)58222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기획·디자인 큐라인

인쇄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창간일 1961년 8월 31일

4 ESSENTIAL KEPCO

이 시대의 히어로들에게

10 TIMELINE

여름보다 뜨거운 한전의 열정과 도전

12 K-INFO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
사회봉사단 창단 20주년 발자취

14 LIGHT

국가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큰 그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here i am, i am KEPCO



18 FOCUS

전자입찰시스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다
모바일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20 SITE

북당진~고덕HVDC 준공 현장을 가다

24 GREENSIGHT

친환경 신소재로 만드는
'무해한' 나만의 오브제
김포지사

28 VIEW

당신은 파도에 떠밀려 온
포말처럼

30 WIDE

세계 최대 게임기업
닌텐도의 비결은 '확장'

32 CURATION

해 질 녘에는 여기,
국내 노을 명소

34 MIND&U

혹시 내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36 TALK

사랑하는 마음들,
떠나보내야 하는 마음들
영화 <원더랜드>

40 K-CREATOR

짜릿한 승리를 거머쥐다!
KEPCO FC

42 MAGAZINE P

미래도시의 풍경 속으로,
송도국제도시&인천본부 남인천지사

44 KEEPER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서
신송전사업처 김정용 차장

46 人STARGRAM

48 NEWS

50 ON KEP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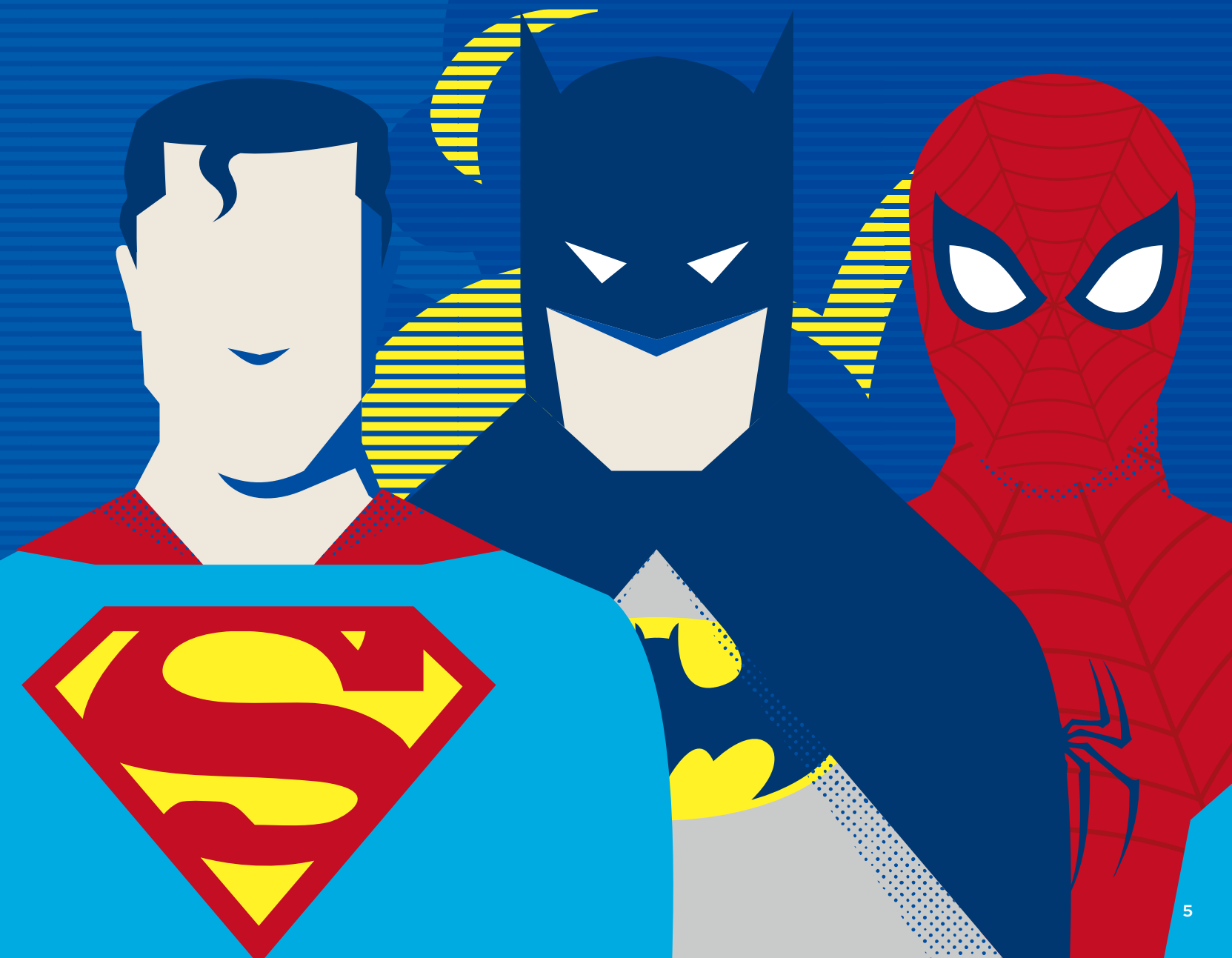
이 시대의 히어로들에게

normal person
HERO

but

Part 1

다 무너진 건물 속에서 사람을 구하고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여겼던 자연재해도 이기며, 그 어떤 강력한 악당이 나와도 우리에게 짜릿한 승리를 안겨주던 그들, 히어로. 그렇기에 우리는 때때로 히어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천하무적이 되어 온 세상을 구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 우리는 압니다. 강한 힘을 자랑하는 슈퍼맨도, 밤의 수호자 배트맨도, 거미줄로 빌딩숲을 오가는 스파이더맨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음을. 어쩌면 진짜 히어로는 일터와 가정에서 일상의 무게를 지고 묵묵히 버티는 평범한 현대인, 아니 한전인들이 아닐까요? 이 시대의 진정한 히어로인 당신을 응원합니다!



‘슈퍼맨’이라고 하면 하나같이 ‘절대적 존재’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그 누가 감히 슈퍼맨과 싸워 이기겠는가? 질 수 없고, 저서도 안 되는 존재가 슈퍼맨이다. 슈퍼맨이 가져다주는 승리는 당연했고, 슈퍼맨의 약점은 무조건 비밀에 부쳐야 했다. 아이들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이라고 질문을 던지면 돌아오는 답 족족 “슈퍼맨”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브라운관 속에서의 슈퍼맨은 이토록 강할 뿐만 아니라 선망의 대상이었다.

히어로가 아닙니다만?

슈퍼맨을 원하는 사회

슈퍼맨이 되어야 하는 시대

브라운관 속에서만 존재하던 슈퍼맨이 어느 날 현실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확하게는 현실이 ‘요구’하기 시작했다. 각종 미디어에서는 일도 잘하고 육아도 잘하는 슈퍼맨 같은 부모를 심심치 않게 소개했다. 매일매일 업무에 치이는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자기 업무에 능력자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부하며 자기 계발에 열을 올리고 운동으로 자기관리까지 하는 슈퍼 직장인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인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무엇이든 잘하는 만능 슈퍼맨을 당연시하게 됐다.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보다 여러 일을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만화 주인공 캔디 같은 씩씩함도 잃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이 다음이다. 모든 업무나 문제를 혼자서 떠안아야만 마음이 놓이는 ‘슈퍼맨 증후군’이 찾아온다는 사실이다. 슈퍼맨 증후군은 슈퍼맨처럼 모든 일을 자신이 떠맡아야 안심하는 증후군이다. 이 업무도, 저 업무, 이 문제도, 저 문제도 자신의 손을 거쳐야만 마음이 놓이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책임감이 지나치게 강한 데서 오는 강박 때문이다.





슈퍼맨에게도 번아웃 찾아와

사람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 언젠가 고갈되고 마는데, 이를 '번아웃'이라고 한다. 슈퍼맨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의 대다수는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진다. 이는 '1+1=2'처럼 명확한 명제이기도 하다. 자신의 에너지 한계를 모르고 전력질주만 하면 그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뻔한 것처럼 말이다.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혹은 자신만 바라보는 누군가를 위해 슈퍼맨이 되길 원했던 사람들은 능력을 심분 발휘하며 따라오는 스트레스를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한다. 바로 여기서 번아웃 문제가 시작된다. 한 번 번아웃이 오면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우울증과 비슷한 번아웃은 사람의 열정을 좀먹고 자라 마침내 거대한 절망이 되어 사람을 집어삼킨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이젠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등의 무기력이 번아웃의 대표적 증상이다.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 '슈퍼 팀'으로

만능 슈퍼맨을 원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확실한 점은 슈퍼맨도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슈퍼맨이라고 해서 모두 해결하지는 못했다. 그들도 누군가를 잃었다.

강한 힘을 가진 슈퍼맨은 사랑하는 연인을 잃었고, 사회악을 처단하는 고담 시의 다크나이트 배트맨은 함께 정의를 논하던 친구를 잃었다. 스파이더맨 역시 사랑하는 연인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했다. 히어로라고 해서 모두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각자의 능력을 가진 히어로들이 팀을 이룬 영화 <어벤져스>를 떠올려본다면, 슈퍼맨 증후군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터다. 한 명의 영웅이 백 명을 살리는 시대는 지났다. 나의 부족한 점을 누군가가 채워주고, 누군가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주며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 '슈퍼 팀'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All for One One for All

함께하는 우리가
슈퍼맨
한전 럭비단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한전 럭비단은 무더위 속에서도 한창 연습에 열 올리며 오늘도 땀 흘리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1986년 창단한 역사 깊은 국내 실업 럭비단으로,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구단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한전 럭비단의 'All of One, One of All' 이야기를 들어 본다.



퇴약별에도 럭비 훈련에 진심인
한전 럭비단 선수들.

‘불패’의 히어로, 협동심으로 뭉치다

2023년 코리아 럭비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어려움 속에 있는 한전에 힘을 불어넣어 준 한전 럭비단. 한 명 한 명이 슈퍼맨처럼 든든해 보이지만, 그들은 역시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우승이었다고 말한다. 모두가 함께했기에 가능한 우승이었다는 한전 럭비단은 구단의 자랑으로 ‘팀워크’와 한전에 대한 ‘애사심’을 꼽는다.

강력한 팀워크와 애사심을 바탕으로 22명의 선수가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뛰어난 협동심을 발휘하며 한전 럭비단은 백전백승의 히어로처럼 ‘불패’의 아이콘으로 거듭났다. 대부분의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다시 한번 한전 럭비단의 저력을 입증했다.

Q. 한전 럭비단의 장점을 꼽자면?

김집 선수(주장) 대부분의 선수들이 국가대표 출신이라 실력이 좋습니다. 어느 대회를 나가든 좋은 성적을 거머쥘 수 있는 데는 개인의 실력과 팀의 힘이 잘 어우러졌기 때문이죠.

박완용 코치 팀워크와 애사심이 높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팀원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서로 공유하며 유대감을 쌓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Q. 한전 럭비단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김집 선수 ‘가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좋은 가족은 대화하며 서로를 맞춰가듯, 저희 팀 역시 서로에게 스며들 듯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을 키워가고 있고요. 잘못된 부분은 바로 피드백 주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팀이 나갈 수 있도록 하기에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노옥기 선수 히어로들마다 각자 능력이 달라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어벤져스처럼 한전 럭비단도 각 포지션마다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임무가 있는데, 최고의 선수들이 모였다 보니 다른 선수들의 부족한 부분도 커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벤져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건 선수 ‘척하면 척이다’입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 이제 무엇을 할 줄 아는 경지에 이르렀다 보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유대감이 참 잘 형성된 것 같아요.

김대환 선수 팀워크가 워낙 끈끈하다 보니 ‘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각오

김집 선수 지금 대통령배 대회랑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거둔 만큼, 올해의 모든 경기에도 승리를 거머쥐어 회사에 힘이 되고 싶습니다. 무조건 우승하겠다는 각오로 모든 선수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용 코치 어떤 대회든 무조건 우승하고자 합니다. 한전에 힘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선수들인 만큼, 사우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e are
HERO



대한민국 럭비 실업팀 최고 구단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한전 럭비단.

(왼쪽부터) 이건 선수, 노옥기 선수, 김집 선수, 김대환 선수.

여름보다 뜨거운 한전의 열정과 도전

“예비력 확보·전력설비 보강 등 총력 대응”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체계 가동

기후변화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빈번한 이때, 올여름 한반도에 역대급 폭염이 전망되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전은 평년보다 훨씬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여름 전력수급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력수급 비상훈련을 6월 25일 본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전국 15개 지역본부가 동시에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이상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과 발전기 고장으로 인해 예비력이 급감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수급비상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별로 진행했다. 단계별 발령시 조치 사항에 따라 냉방기 원격제어*, 변압기 전압 하향조정, 긴급절전 수요조정** 등 추가 예비력 자원 가동을 시연하며, 대국민·언론·관련기관 상황전파 체계를 점검했다.

김동철 사장은 직원들에게 “무더위가 예상되는 올 여름철에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응 체계 관리와 주요 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을 면밀히 추진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전은 6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전력수급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전력수급 비상대응 체계와 전력설비를 사전에 점검하여 국민들의 전기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력수급 대책을 위해 전력사용량이 많은 대용량 고객들과 긴급절전 수요조정 약정을 체결하여 비상상황시 650MW의 수요관리량을 확보하는 등 추가 예비력 자원 1.6GW를 마련했으며, 이 기간에 전력수급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수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흔히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전력설비 고장과 정전 피해에 대비하여 전력설비 일제 점검을 6월까지 완료했다.



* 고객 건물의 냉난방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력수급비상 관심단계(예비력 4,500MW 미만) 시 한전에서 직접제어를 시행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한전과 고객이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수급비상 주의단계(예비력 3,500MW 미만) 시 한전의 요청에 따라 전력부하를 감축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역대급 폭염 전망 속에서 전력수급비상훈련과 점검으로 분주한 한전의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대책을 짚어보고, 글로벌 무대를 향한 한전의 지속적인 도전을 따라가 본다.

글로벌시장을 향한 도전

해외원전사업본부 혁신 대토론회

글로벌 시장을 향한 한전의 도전은 이번 달에도 계속됐다.

김동철 사장은 6월 8~10일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 Barito그룹 등 에너지기업과 신기술·신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에너지 광물자원부 장관을 예방하여 양국 간 에너지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김동철 사장은 6월 10일부터 3일간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전력공사(EVN)와 신기술·신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송변전 예방진단 시스템(SEDAS), 차세대 배전망 운영 시스템(ADMS) 등 신기술 연구성과 및 실증사례를 소개했으며, 향후 양사는 신기술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한전은 베트남 내 한전 최초 발전사업인 응이손 발전소가 위치한 탕화성 정부와 신규사업 협력 기회 발굴을 위한 사업의 향서를 교환했다. 이를 계기로 한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베트남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신기술·신사업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편, 한전은 회사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첨병 역할을 수행하는데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한 해외원전사업본부 혁신대토론회를 시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신기술 신사업 중심의 해외사업 혁신방안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방안, 인력과 법인 운영방안, 관련 기관 협력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분임조별 토론을 진행했다.



한전 사회봉사단 창단 2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22일부터 1개월간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걸음기부 캠페인 ‘걸어 봄, 나뉘 봄’을 시행한 결과 목표걸음 2억 320만 보를 433% 이상 넘어선 8억 8천만 보를 달성했다. 걸음기부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신 생활 속 걷기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기부까지 연결시키는 탄소저감 선순환 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한전 임직원 4천여 명을 비롯한 총 1만 1천 명이 참여하여 캠페인 기간동안 총 80톤의 탄소를 줄이고 소나무 1만 2천여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탄소저감 효과를 달성했다.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

사회봉사단 창단 20주년 발자취

320만 시간의 나눔, 땀과 노력

2004년 5월 ‘세상의 빛을 이웃에 사랑을’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창단한 한전사회봉사단은 현재 전국 308개 봉사단, 2만 3천여 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공기업 최대 규모의 봉사단으로 20년간 무려 320만 시간(365년)의 땀과 노력을 통해 다양한 국내외 사회·복지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전은 ESG 경영전략과 부합하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서해안 해양갯벌 복원 및 바다숲 조성을 위한 블루카본(Blue Carbon) 조성사업’ 등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또 저소득 가구가 건강하게 흑한기와 흑서기를 지낼 수 있도록 미납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랑의 에너지 나눔사업’을 2015년부터 꾸준히 전개하여 전국의 3만 8천여 가구를 지원했다.

실명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안수술비용을 지원하는 ‘Eye

Love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 지금까지 국내외 3,000여 명의 환자가 잃어버린 빛과 희망을 되찾았다.

한편, 한전은 2010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임직원으로 구성된 ‘KEPCO 119 재난 구조단’을 창단, 전문구조자격을 취득한 단원을 포함한 총 150명의 전문 봉사조직으로 국가재난 및 대형 행사에서 응급구조와 의료지원, 현장복구로 활약한다. 이 밖에도 한전은 어려운 재무상황에서도 전 직원이 뜻을 모아 2023년도 급여인상분을 대한적십자에 기탁했고, 어려운 재무여건을 감안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인 ‘러브펀드’ 중심의 지원활동을 전개하며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나가고 있다.

(왼쪽부터) 장애우와 함께하는 김장담그기(2009), 강릉 폭설현장 봉사 활동(2014), 농촌일손돕기릴레이챌린지(2021), 아이러브 개안수술지원, 평창올림픽(2018)





한전 사회봉사단 창단

2004년 5월 6일



한전 사회봉사단 조직

**308개 봉사단
22,683명**



러브펀드 모금액

31,382백만 원



봉사활동 시간

3,237,629시간



봉사활동 참여인원

240,304명



지원단체

51,955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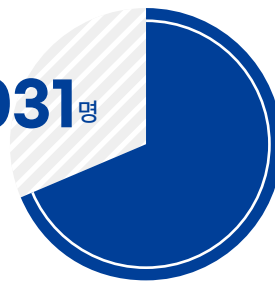


Eye Love 프로젝트,
개안수술 지원

2011~2023년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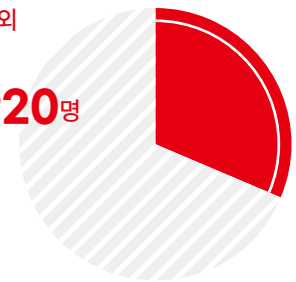
국내

2,031명



해외

920명



국가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큰 그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 중장기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계획기간은 15년간이며(11차 전기본 : 2024~2038년),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 수요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023년 7월 18일 전력정책 심의회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에 착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총괄위원회, 4개 소위, 7개 워킹그룹의 91명의 전문가가 총 87회의 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2024년 5월 29일 총괄위원회에서 실무안을 최종 확정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실무안을 공개했다.



1

전력수요 전망

목표수요 129.3GW 산정

전기본의 전력수요 전망은 중장기 전력수급 전망 및 설비계획을 위한 첫 단계다. 목표수요는 ①경제성장률·인구전망 등을 반영한 계량모형을 통해 도출한 모형수요에 ②데이터센터, 전기화 수요 등 모형이 고려하지 못한 추가수요를 계산하여 합산한 후, ③수요관리를 차감하여 산출했다.

모형수요는 GDP 성장률(해당 기간 1.63%), 장기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업구조,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하며 2038년 전력수요는 2023년 최대 수요(98.3GW, 전력계통 수요 기준) 대비 30.6GW가 증가한 128.9GW로 전망되었다.

추가수요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데이터센터 조성, 전기화 수요 등 모형수요에서 반영하지 못한 16.7GW가 반영되었으며,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s)’ 목표 등을 반영하여 수요관리를 통해 16.3GW 감축하는 것으로 고려되었다.

전력수요 산정 과정(괄호는 2038년 기준)

$$\text{목표 수요 (129.3GW)} = \text{① 모형수요 (128.9GW)} + \text{② 추가수요 (16.7GW)} - \text{③ 수요관리 (16.3GW)}$$

2038년까지 157.8GW 목표설비 산정

전력공급은 수요전망 단계에서 도출된 목표수요에 기준 설비 예비율을 고려한 ①연도별 목표설비를 도출하고, 기계획된 설비 건설 및 폐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고려하여 전망한 ②연도별 확정설비를 목표설비에서 차감하여 ③연도별 신규 필요설비를 도출한 후, 전원믹스를 확정했다.

발전설비의 불시고장, 정비소요, 건설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기준설비 예비율은 단기(2024~2028년) 20%, 중기(2029~2032년) 21%, 장기(2033~2038년) 22%로 도출되었다. 이는 ‘10차’에서 적용되었던 기간별 예비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비율을 감안한 2038년 목표설비는 157.8GW로 산출되었으나, 확보된 발전설비 147.2GW(신재생 보급전망 포함)를 제외한 10.6GW 용량의 신규로 발전설비 확보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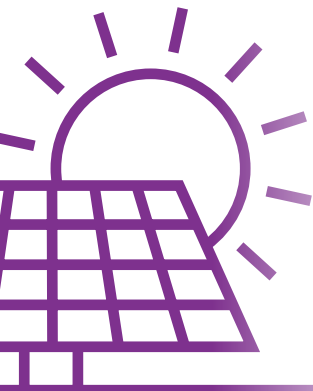
필요설비 산정 과정(괄호는 2038년 기준)

$$\text{③ 신규 필요설비 (10.6GW)} = \text{목표수요 (129.3GW)} \times \text{(1+예비율 (22\%))} - \text{② 확정설비 (147.2G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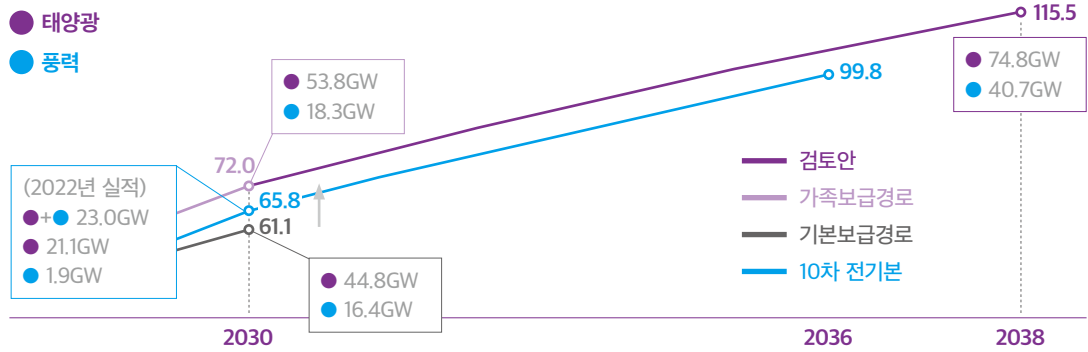
① 목표설비(157.8GW) (신재생 보급전망 先반영)

태양광·풍력 2030년까지 2022년 실적 대비 3배 이상인 72GW 전망

신재생에너지는 설치 잠재량과 전력계통 여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과학적으로 보급경로를 전망했다. 2030년의 경우 현재의 계통여건과 추진환경을 반영한 태양광·풍력의 보급전망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전망(연말 정격기준, 단위: GW)



은 '10차 전기본'에서 예상된 보급전망(65.8GW) 대비 낮은 수준이나, NDC 달성을 위해 산단태양광 활성화, ESS 조기보강,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의 정책적 수단을 반영하여 72.0GW로 상향 전망했다.

그 결과,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은 2022년 23GW에서 2030년 72GW로 확대되어 COP28에서 합의된 재생 에너지 3배 확대 목표를 달성할 전망이다.

2038년까지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은 꾸준히 증가하여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은 115.5GW(10차 대비 +15.7GW), 수력·바이오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전체는 119.5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신규 대형원전은 4.2GW(3기) 가능, SMR은 0.7GW(1기) 실증분 반영

신규로 필요한 발전설비는 2038년까지 10.6GW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연도별 확정설비와 기간 별 설비 예비율을 감안 시 2031년 이후부터 설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원별 건설기간과 미래 기술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 신규건설 수요를 도출했다.

대형원전의 경우, 부지확보 등의 기간을 포함해 167개월(13년 11개월)의 건설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37년 이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발전계획을 마련했다. 2038년까지 기간별로 예상되는 부족 발전물량은 다음과 같다.

2031~2032년 이 기간에는 무탄소 전원의 기술개발 속도를 고려할 때 진입 여부가 아직 불명확하므로 LNG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으로 필요한 설비를 충당하기로 했다.

※ 신규사업자는 입찰시장을 개설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10차 2032년 필요물량 1.1GW는 시범입찰을 통해 확보하고, 부족분은 필요사항 보강 후 선정.

2033~2034년 이 기간에도 무탄소 전원의 기술개발 속도를 고려할 때 진입 여부가 아직 불명확하다. '수소 혼소 전환 조건부 열병합 또는 무탄소' 물량으로 두고 차기 12차 전기본에서 발전원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2035~2036년 현재 개발 중인 SMR의 상용화 실증을 위해 0.7GW 분량을 할당하고, 나머지 1.5GW는 추후 수소전소 등 다양한 무탄소 전원 간 경쟁이 가능한 '무탄소 입찰시장을 도입'하여, 최적의 전원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2037~2038년 4.4GW의 신규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당 1.4GW 건설한다고 가정할 경우 산술적으로 최대 3기 건설한 물량이나, 부지확보 등 추진일정(13년 11개월), 소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가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적안을 도출할 것을 권고했다.

2

NDC 달성방안과 발전량 전망



무탄소 우선, 2038년 발전량 중 무탄소 비중은 70%

작년 3월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환부문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400만 톤 상향되었다. 이번 전기본 실무안에 반영된 설비계획이 이행된다면, '10차' 대비 증가한 신재생 및 수소발전에 힘입어 상향된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38년에는 신규원전이 진입하고 수소발전에 보다 확대되는 한편,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도 대폭 증가하면서 2023년 40%에 못 미쳤던(원전 30.7%, 재생에너지 8.4%) 무탄소에너지(CFE)의 비중이 70%에 달하여 본격적인 '무탄소 에너지'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30년부터는 무탄소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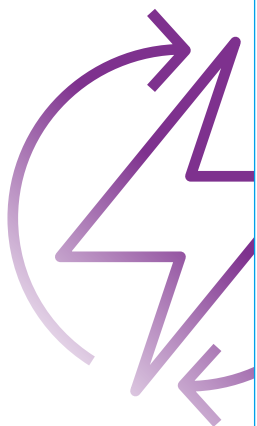
발전량 및 발전비중(안)(단위: TWh, %)

구분	원전	석탄	LNG	신재생	수소 암모니아	기타	합계	탄소	
								탄소	무탄소
2030년	204.2 (31.8%)	111.9 (17.4%)	160.8 (25.1%)	138.4 (21.6%)	15.5 (2.4%)	10.6 (1.7%)	641.4 (100%)	301.9 (47.1%)	339.4 (52.9%)
2038년	249.7 (35.6%)	72.0 (10.3%)	78.1 (11.1%)	230.8 (32.9%)	38.5 (5.5%)	32.5 (4.6%)	701.7 (100%)	209.1 (29.8%)	492.6 (70.2%)

* 무탄소 에너지 : 원전 + 신재생 + 수소·암모니아 - 연료전지·IGCC

3

긴급한 과제는 전력망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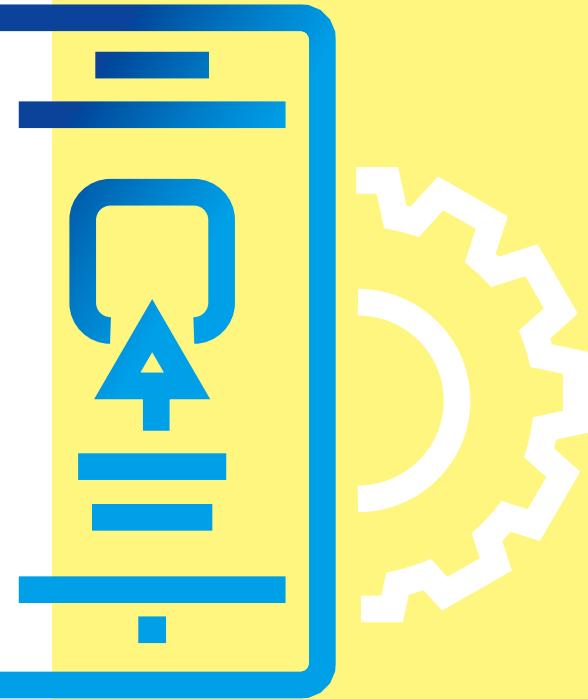
11차 전기본 실무(안)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면, ▲큰 폭의 전력수요 상승(10차 전기본 대비 +11.3GW)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10차 전기본 대비 태양열·풍력 +15.7GW) ▲원전을 포함한 신규 발전설비 10.6GW 증가 ▲발전의 입찰시장 개설 ▲재생에너지·원전 등 전원믹스 확대에 따른 무탄소 전원 발전량 확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기본 실무(안)은 전략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진행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전기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선 전력망 보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보강 방안을 적기에 건설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전력망 확충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계통계획처는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설비계획 수립 시에는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시공성, 사회적 수용성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된다.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발전력은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의 발전력을 수도권의 수요로 전송하기 위한 대규모 전력망 확충계획 수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NWA*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하여 전력망 보강을 최적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수립한 대규모 전력망 확충계획도 민원·지자체 비협조 등으로 당초 목표 대비 건설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지연에 따라 발전계약 발생, 적기 전력공급 곤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향후 지속적 전력망 확충 지연 시에는 첨단산업 특화단지 등 국가경쟁력 확보와 직결되는 사업도 전력공급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이 상당하다. 이에 한전은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NWA(Non-Wire Alternatives) : 송전망 건설이 아닌 대안으로 망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기술.



한전은 2024년 6월부터 모바일 전자조달시스템을 오픈 및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체 개발의 50%를 담당한 한전은 신뢰도 높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공공기관 입찰분야 최초로 웹앱 형태의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자입찰시스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다

모바일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연 계약 규모 12조! 한전 전자조달시스템

대위가 시작되던 2016년 8월, 한전의 新 전자조달시스템이 협력업체의 도움 없이 자체 운영을 시작했다. ‘따르릉 따르릉’ 없이 울리는 민원전화와 오픈 초기 예상치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반복됐다. 전자조달시스템은 매일 수 없는 입찰이 반복되고, 이를 통해 사업을 수주한 업체 그리고 탈락한 업체의 희비가 갈리는 치열한 현장이다. 시스템 장애로 문제가 생길 경우, 입찰에 참여한 협력사들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어 언제나 예민하고 민감하게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경험 많은 차장들과 대학을 갓 졸업한 후 자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인소상’을 처음 경험한 열정 있는 직원들은 매일 시스템 문제를 직접 해결하며 밤낮없이 시스템을 안정화했다. 어느덧 시스템이 오픈한 지 9년이 지났다.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사는

전력그룹 17개사로 늘었으며, 누적 계약 금액은 약 100조 원, 누적 계약 건수 28만 건, 등록된 입찰대리인은 2.5만 명에 이른다. 시스템 장애 또한 연간 2건 이하로 감소하며 뛰어난 안정성을 자랑한다. 2022년 배전단가 선정 입찰에서는 모든 공고가 장애 없이 1시간 안에 개찰될 정도로 성능과 안정성이 개선됐다. 한전 직원들이 직접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기에 참여 업체들의 입찰정보에 대한 보안도 강화됐다. 드디어 한전의 신뢰성 있는 전자입찰 생태계가 완성된 것이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채널을 만든다, 모바일 전자조달시스템

2016년 8월 新시스템 오픈 이후, 지속적인 노력 끝에 장애 발생 횟수가 현저히 감소했다. 시스템이 안정화된 것이다. 2023년 3월, 전자조달시스템 고객들에게 ‘편리

함’이라는 더 나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고, 고객들은 61%라는 높은 수치로 전자입찰 모바일 서비스를 희망했다.

여러 공공기관의 입찰시스템에서 모바일 홈페이지 화면을 선보인 바 있으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본격적인 웹서비스는 제공된 바 없었다. 보수적인 공공 입찰분야에서 기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 구축은 도전적인 과제였다.

그러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계약담당자 및 협력회사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실시간 계약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은 분명했다. 한전 입찰시스템에 대한 고객만족은 한전의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했으며, 전자조달시스템은 공공분야 최초 모바일 웹앱* 서비스를 구축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 웹앱: 모바일 앱과 유사하지만 웹 브라우저(WEB) 기반으로 동작, 운영체제(iOS, 안드로이드 등)의 제약이 없어 효율적인 개발·운영이 가능하다.

** Back-End: 웹 사이트에서 일반 사용자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종의 ‘무대 뒤편’으로 프로그램의 데이터 관리와 알고리즘을 담당한다.



우리 회사 시스템 내 손으로 만들다, 모바일 공동 개발 (feat. 주인의식)

2023년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기획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안정성'과 '편의성'이었다. 완벽한 요구사항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인소싱' 부서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을 했다. 한전 담당 차장과 직원이 직접 개발팀원으로 프로젝트에 합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9년의 프로그래밍 경험과 시스템 운영 노하우가 존재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다.

2024년 1월, 입찰시스템 전문 개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구축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전력은 Back-End**라 불리는 전자입찰 핵심 알고리즘 전체와 일부 화면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담당했고, 공급사는 UI/UX라 불리는 디자인과 일부 화면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담당했다.

모바일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자조달시스템부 직원들이 모두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주말과 밤낮없이 본인의 고유 업무와 프로젝트 업무를 순조롭게 수행했다. 평일 주간에는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야간과 주말에는 프로젝트 개발을 진행했다. 심지어 개발 일정을 앞당겨 운영환경에서 선제적으로 테스트함으로써 시스템 오픈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조금의 불편 또한 용납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24년 6월 드디어 모바일 전자조달시스템이 국민에게 서비스되기 시작했다. 계획된 사업기간이 준수됐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업체와의 분쟁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장애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인소싱 부서의 프로그래밍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한 '주인의식'이 빛을 발한 순간이다.



잘 만들었으면 고객에게 알려줘야지, 모바일 전자조달시스템 홍보

모바일 시스템 기능 개발은 성공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했다. 홍보는 온·오프라인 양 채널에서 이루어졌다. 오프라인에서는 시스템을 함께 개발한 상생조달처의 도움으로 「친환경·품질혁신 기자재 확대 정책공유회(4.24, 판교)」에서 홍보 시간을 배정받았다. 한전 사장 및 사외 기업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다. 온라인에서는 모바일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이미지 팝업을 게시하며 고객의 호응을 유도했다.



모바일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스마트오피스를 향해

2024년 6월 3일, 모바일 전자조달시스템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업무는 공고 조회, 개찰결과 조회, 가격 사전공개, 공급자관리 등 18종의 기능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4년에는 모바일 시스템의 강점을 살려 한전 담당자들이 공급업체 평가를 현장에서 바로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현장심사'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부터는 '조화'에 한정된 현재 모바일 서비스 기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PC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모바일시스템에 도입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입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자입찰 스마트오피스'를 향해 나아갈 예정이다.

전자조달시스템 고유의 '인소싱' 전문성과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민첩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안전하게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다. 우리 회사 시스템을 내가 직접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내·외 모든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책공유회 홍보 현장(CT운영처 전자조달시스템부 김태일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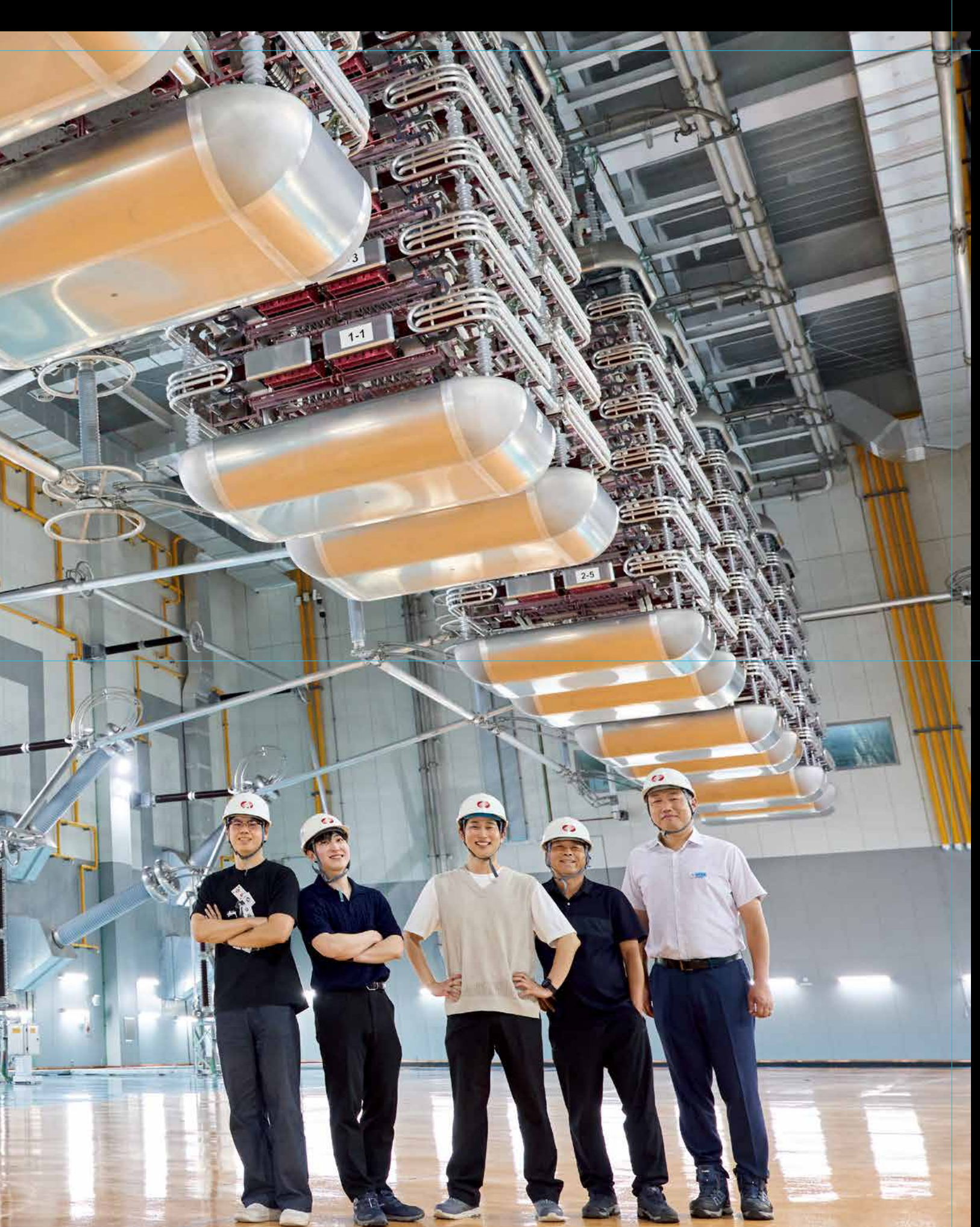
직류전기 시대가 열리고 있다. 500kV
북당진~고덕 고압 직류송전(HVDC)
건설사업이 준공돼 서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전력수송 고속도로가 뚫렸다.
국내 최초이자 최대용량의 고압직류
송전망 건설사업인 북당진~고덕HVDC
선로가 완공된 것. 그 현장으로 가보자.

북당진~고덕HVDC
준공 현장을 가다

Connect

Our

Dreams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하는 핵심설비인 밸브 앞에 선 서남해계통건설실 계통변환부 변환1팀. 북당진~고덕HVDC 건설사업에 마침표를 찍은 주인공들이다.

서해안의 전력 인프라 중심, 북당진변환소의 ‘업그레이드’

서해대교가 드리운 바다를 바라다보며 북당진변환소가 서 있다. 북당진변환소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용량의 고압직류 송전망인 북당진~고덕HVDC 선로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올해 5월에 드디어 10년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은 북당진~고덕HVDC 건설사업은 충남 당진의 북당진변환소와 경기도 평택의 고덕변환소 사이 34.2km의 구간을 500kV DC 케이블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1,500억 원이 투입됐다.

이 선로는 총 3GW를 송전할 수 있으며 이는 원자력발전소 3기(1기당 1GW 기준) 규모로 주택용 3kW 1백만 호에 하루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이 사업은 특히 첨단산업단지가 집약돼 있는 평택 고덕 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공장, 라인 증설과 같은 첨단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 전력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다.

서해안지역의 발전제약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태안화력발전소 등 서해안 발전소들은 송전망 부족 때문에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지 못해 발전량을 일부러 줄여왔다.

AC필터, 밸브, 평활리액터 거치며 직류 완성도 높여

고덕변전소와 겹쳐 사용하고 있는 고덕변환소의 출입구를 들어서니 옥외에 기존의 변전소에서 본 듯한 설비들이 빼곡하게 펼쳐진다. 먼저 AC필터는 전력 변환 시 필요한 무효 전력을 제공하고, 고조파*를 제거하는 설비다. 이곳을 거친 순도 높은 전기는 변환용 변압기에서 적절한 전압으로 낮춰져 냉각설비를 거쳐 밸브로 보내진다. 밸브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핵심 설비다. 이 설비를 실물로 영접하기 위해 건물 안 밸브 룸으로 들어섰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밸브 설비가 위용을 자랑한다. 밸브 설비는 제1선로와 제2선로에 해당하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밸브에서 직류로 변환된 전기는 우주선처럼 생긴 독특한 외관의 평활리액터(DC)에서 더 정교하게 교류 성질을 없애 직류전기의 완성도를 높여 선로로 전송된다.

수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 실은 10년간의 대장정

HVDC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시켜 송전하는 기술을 말한다. 자유롭게 전압을 바꿀 수 있고 송전 과정에서 전력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전력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전자파도 없다. 앞으로 각광받을 HVDC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주역들은 바로 중부건설본부 서남해계통건설실 계통변환부 변환1팀이다. 이들은 북당진~고덕HVDC 사업이 총 2단계에 걸쳐 진행됐다고 설명한다. 2020년 12월에 1.5GW 건설을 완료했고 2단계 1.5GW는 올해 5월에 완료하여 총 3GW에 달하는 전력공급 능력을 확보했다.

2014년도 북당진~고덕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1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올해 2단계 사업을 준공했다. 10년간의 대장정이었다. 1단계 사업은 2단계 사업을 위한 토건 공정 등 기반 설비 물량이 더 많아 2단계보다 조금 더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1단계 사업의 경험으로 2단계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국내 최초 육상 HVDC 사업이며 3GW라는 대용량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맞닥뜨려야 할 때가 많았다. 계통 상황을 살피며 무수한 부하시험과 시운전을 반복하며 건설사업을 진행해 왔고, 많은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긴 건설 과정에서 사업 담당자도 많이 바뀌었다. 그만큼 여러 사람의 땀과 수고가 들어 있는 사업이라고 서남해계통건설실 오양환 차장은 지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인다.

이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이들은 최초 가압 당시를 꼽는다. 길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 설비를 모두 설치하고 최초로 계통에 연계하여 가압할 때의 그 순간은 이들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이었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사업의 공정을 모두 마친 지금은 완공된 변환소와 선로를 맡아 운영하는 사업소와 관련 부서들을 잘 지원하고 협조하여 설비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미래형 송전선로인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가 바다를 건너 육지와 육지를 잇기까지 누군가는 꿈을 꾸었고, 누군가는 착수했으며, 누군가는 시행착오와 성공을 오가는 무수한 발자국을 찍었을 것이다. 수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 도전과 극복의 이야기가 모여 전력사업 역사에 또 하나의 획을 그었다. 국내 최초 북당진~고덕HVDC 건설사업의 완공으로 제1막을 연 직류송전의 이야기가 앞으로 미래 전력사업 스토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기대해 볼 일이다.

*비정형 파형으로 오작동, 열화 등을 발생시킨다.



무효전력을 제공하고, 고조파를 제거하는 AC 필터.



직류변환에 적합한 전압으로 낮춰주는 변환용변압기(C.T).



제어실에서 점검하는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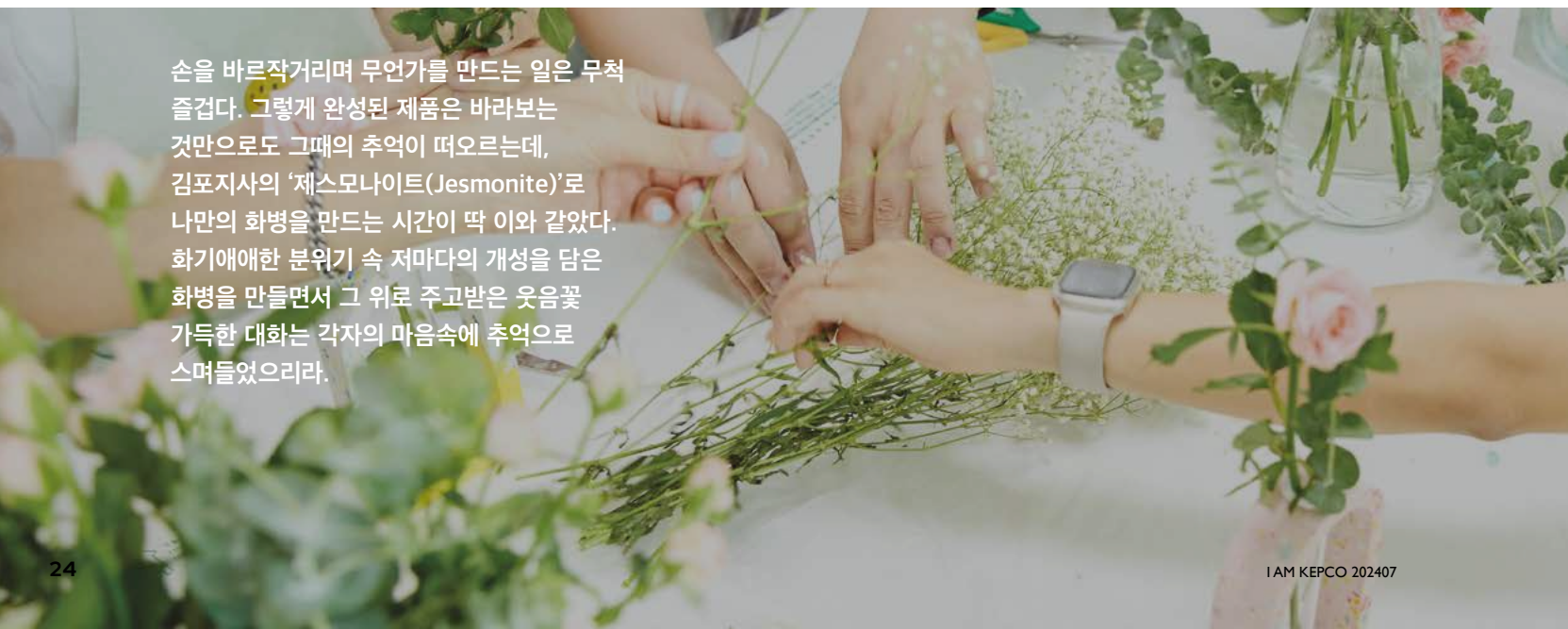
교류 성질을 없애 직류전기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DC 설비.

친환경 신소재로 만드는 '무해한' 나만의 오브제

김포지사



손을 바르작거리며 무언가를 만드는 일은 무척 즐겁다. 그렇게 완성된 제품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는데, 김포지사의 '제스모나이트(Jesmonite)'로 나만의 화병을 만드는 시간이 딱 이와 같았다.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 저마다의 개성을 담은 화병을 만들면서 그 위로 주고받은 웃음꽃 가득한 대화는 각자의 마음속에 추억으로 스며들었으리라.



무해하고 단단한, 제스모나이트

최근 미술이나 공예, 디자인,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스모나이트(Jesmonite)'가 많이 사용된다. 제스모나이트라는 이름부터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마주치는 캔들이나 석고, 레진 등은 유해 물질로 인해 인체에 해롭다. 하지만 제스모나이트는 반응성 미네랄과 순수 수성 아크릴 폴리머를 조합해 만든 친환경 레진으로, 영국에서 1984년 최초 개발됐다. 또한, 영국에서 불연성과 솔벤트 프리 인증을 받아 친환경적임을 입증받았다. 제스모나이트의 장점은 무궁무진하다. 석고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높은 경도와 내구성 및 내화도는 물론이고 실온에서의 빠른 경화 그리고 캐스팅, 몰딩, 코팅 등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그렇다. 나아가 금속, 석모, 플라스틱 등을 첨가하면 다양한 텍스처를 표현할 수 있어 향후 쓰임새가 무한하다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제스모나이트가 최근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데이 클래스에서 레진이나 석고를 대신하고 있다. 무독성으로 인체에 무해하며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레진이나 석고와 비교해도 성능이 뒤처지지 않다 보니 제스모나이트를 찾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조합하고, 섞고, 웃고

일 년 중 해가 가장 길다는 하지. 그만큼 여름의 기운이 듬뿍 담긴 날에 김포지사 전력공급부 이준희 사원, 황인에 사원, 고객센터원부 노찬미 사원, 배전운영부 임지원 사원이 제스모나이트 공방에 모였다.

제스모나이트로 화병을 만들기로 한 이들은 가장 먼저 화병을 하나의 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개의 색, 또는 마블 형태로 할 것인지 등을 선택해야 했다. 시작부터 선택의 기로에 섰기 때문일까. 어떤 색을 선택하고 조합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했지만, 곧 차분히 자신이 원하는 색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이후 물감으로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배합한 후, 제스모나이트 가루를 부어 한데 섞었다. 섞는 과정에서 제스모나이트가 경화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틀에 부어줘야 하지만 가루를 섞으니 색이 연해지는 바람에 다시 색 조합을 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보였다. 페플라스틱 뚜껑을 데코로 넣기로 한 이준희 사원과 임지원 사원은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페뚜껑을 잘게 조각내고, 팔이 빠질 정도로 이것들을 섞느라 애를 먹었다.



페플라스틱 병뚜껑을
고르느라 분주하다.



마그네틱 채색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제스모나이트로 화병을 만들고 있는
김포지사 직원들.



“이러려고 내가 운동하는 거지.” 제스모나이트를 있는 힘껏
섞고 있던 황인에 사원이 운동으로 다져진 팔뚝을 자랑하
는 시간(?)을 가졌다. 또래가 모여 있다 보니 한시도 쉬지 않
고 대화가 오갔고, 웃음 또한 끊이지 않았다.

우리들의 무해한 시간

제스모나이트가 틀 안에서 굳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마
그네틱 채색도 진행했다. ‘문어지지 마요(무너지지 마요)’라
는 문구와 귀여운 문어가 눈에 띄는 마그네틱 채색은 각자
의 개성에 따라 그렸는데, 노찬미 사원의 경우 배경에 구름
을, 황인에 사원은 남색 배경에 형형색색의 무늬를, 임지원
사원은 노란 배경에 하얀 점을 찍었다. 이준희 사원은 보라
색을 배경으로 마그네틱을 완성했다.

마무리는 틀 안에서 굳어진 제스모나이트를 꺼내 사포질하
는 것뿐. 사포질 역시 쉽진 않았지만, 사포질을 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빛깔에 도저히 사포를 손에 놓을 수 없었다. 그
렇게 완성된 제스모나이트 화병을 모두가 환한 얼굴로 반겼
다. 4인 4색을 뽑내는 제스모나이트 화병을 모아 사진 찍기
도 하고, 화병과 함께 셀카를 찍는 등 기쁨 또한 숨기지 않
았다. 친환경 신소재로 환경에도, 인체에도 무해한 제스모
나이트와 함께했던 시간은 이들에게 ‘무해’하게 기록될 것
이다.

친환경 신소재로 인체에 무해한 제스모나이트와
페플라스틱 뚜껑으로 업사이클링한 화병.



*TIP 생화, 오래 보관하고 싶나요?

- ① 꽃줄기의 잎, 가시 등을 최대한 제거해 주세요.
- ② 줄기 끝을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 ③ 꽃병에 식초 2~3방울, 설탕 약간, 물을 넣어 주세요.
- ④ 물은 1~3일에 한 번씩 갈아주세요.

mini interview



이준희 사원 ● 전력공급부

한전에 입사한 사실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제스모나이트로 친환경 체험을 할 수 있어 또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황인애 사원 ● 전력공급부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기회에 친환경적인 제스모나이트로 화병을 제작하는 일이 무척 즐거웠습니다.



노찬미 사원 ● 고객지원부

친환경 소재로 단단하고 견고한 화병을 만들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디퓨저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실용적이라 마음에 들어요.



임지원 사원 ● 배전운영부

공방 체험은 처음이었는데요. 공대생으로서 없는 미적 감각까지 다 끌어서 발휘해 보았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당신은 파도에 떠밀려 온 포말처럼
내게 보글거리다 이내 사라졌지만,

어쩐지 나는 그 포말을 오랫동안 잊을 수 없어
오늘도 그 바다를 찾아갑니다.



당신이 다시 한번
내게로 떠밀려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최대 게임기업 닌텐도의 비결은 '확장'

글로벌 수위권 게임기업 닌텐도(Nintendo).
닌텐도는 1983년 북미발(發) 비디오 게임산업
위기를 극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특히 위기 때마다 콘솔, 휴대용 게임기,
체감형 게임기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확장을 통해
자신들의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난세에 등장한 영웅' 닌텐도

'1983년 비디오 게임 위기(Video game crash of 1983)'는 1983년부터 1985년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가정용 게임기 시장이 크게 위축된 사건이다. 1983년 미국의 비디오 게임 시장은 32억 달러로 고점을 기록했으나, 2년 만인 1985년 1억 달러로 96% 이상 감소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이는 개인용 컴퓨터(PC) 보급 활성화로 인한 소비자의 관심이 빠르게 옮겨간 데다, 시장을 뒤흔든 '아타리 쇼크*'까지 겹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위기 속에 등장한 것이 바로 일본의 게임기업 닌텐도다. 교토에 기반을 둔 닌텐도는 일본 내수시장에서 각종 아케이드 게임과 '게임 앤드 워치'의 성공을 통해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일어난 북미 비디오 게임 산업계의 침체기로, 비디오 게임계의 거장이자 선구자인 아타리가 몰락한 시기다.

위기의 순간마다 확장된
비즈니스 모델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닌텐도.



가정용 게임기 시장 진출을 도모했다. 닌텐도는 침체를 겪은 미주시장 공략을 과감히 선택했고, 이는 적중했다. 주력 제품인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NES)'은 1985년 북아메리카를 시작으로 이듬해 유럽에서 발매, 위기라고 불리던 당시 성공을 거두며 승승장구했다. 출시 초반에는 시장 침체 여파 속에 NES는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닌텐도는 꾸준한 시장조사와 대표작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를 등에 업고 서서히 시장을 지배해 나갔다.

여기에는 닌텐도의 강력한 한 수가 있었다. 무분별하게 게임을 자사 콘솔에 이식하는 대신 자사 콘솔에 가장 적합한 게임을 직접 개발한 후 서드파티의 라이선스 방식을 어렵게 하며 타사 콘솔에서 자사 게임을 구동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했다. 게임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게임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무너진 게임기 시장의 신뢰를 서서히 회복해 나간 것이다.



콘솔왕좌 내준 닌텐도, 휴대용 게임기로 자존심 회복

닌텐도는 북미와 유럽에서 성공을 거둔 NES의 후속작 패밀리 컴퓨터를 발매했다. '슈퍼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SNES)'이라는 명칭으로 발매한 이 게임기 역시 성공을 거뒀다. 이는 닌텐도에 세계 최고 게임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져다줬다. 그러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1990년대 초중반 소니(SONY)가 플레이스테이션(PS)을 내놓으며 닌텐도의 아성에 도전한 것이다.

플레이스테이션의 등장은 화려했다. 출시 직후 전 세계에서 1억 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가정용 게임기 시장의 새로운 왕좌에 등극했다. 반면, 닌텐도는 5세대 가정용 게임기 '닌텐도64'의 실패로 자존심을 구겼다. 이후 출시한 6세대 가정용 콘솔 '게임큐브' 역시 플레이스테이션의 아성을 넘지 못했다.

닌텐도는 휴대용 게임기로의 시장 확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게임팩'으로 불리는 ROM 카트리지를 교환 가능한 휴대용 게임기 '게임보이'를 발매, 다시 시장의 이목을 끄는 데 성공한 것이다. 가정용 게임기와 비교해 낮은 가격과 언제 어디서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휴대성을 갖추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후발주자의 큰 성공에도 흔들림 없이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며 닌텐도는 게임산업을 리딩했다.



체감형 게임기 위(Wii)의 성공, 다음 확장은 어디일까?

닌텐도는 특정 세대에만 국한된 가정용게임기 수요 확장을 위해 고민했고, 게임 이외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탑재한 체감형 게임기 '위(Wii)' 출시를 통해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위는 손에 컨트롤러를 쥐고 팔을 휘젓거나 몸을 움직여 게임을 즐기는 방식으로 조작된다. 전에 없는 방식인 직접 몸을 움직이며 즐기는 게임 콘텐츠를 통해 남녀노소로 이용자를 확장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위는 전세계 판매량 1억 대를 돌파하며 같은 시기 출시한 플레이스테이션의 3세대 게임기의 판매량을 넘어섰다. 동시에 닌텐도 최초 1억 대 판매 기기로도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닌텐도는 성공과 위기를 반복하며 세계 최대 게임기업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왔다. 위기마다 닌텐도를 다시 최고의 자리로 이끈 것은 그들의 과감한 시장 확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는 어떤 비즈니스 확장을 통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지 기대되는 바다.



해 질 녘에는 여기, 국내 노을 명소

특별한 일몰을 품은 지역명소들이 있다. 같은 하늘 아래 서로 다른 노을 풍경을 보이는 곳은 어디일까. 동서남북, 때로는 바다 건너 먼 나라까지, 노을이 아름다운 장소를 추천한다.

1.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노을 인천 송도 솔찬공원

공원과 붙어 있는 바다 건너편에는 인천 신평과 가스 기지가 보이는데, 이 뒤로 해가 지는 모습이 색다르다. 매해 12월 31일 되면 마지막 해넘이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한다.

2.

사진가가 사랑하는 낙조 포인트 태안 꽃지해수욕장

해변 우측에 위치한 할미바위, 할아비바위 사이로 해가 떨어지는 모습은 특히 아름답다. 일몰 시간이 되면 바다에 떠 있는 바위와 노을빛으로 해변이 붉게 물든다.

3.

아기자기한 노을 풍경 묵호 등대 담화마을

일출이 유명한 동해에도 노을 명소가 있다. 등대 담화마을이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마을로 올라가면 등대 아래로 작은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서해처럼 짙은 노을은 아니지만 은은하게 번지는 분홍빛 하늘이 무척 아름답다.

4.

현지인들만의 인기 스팟 부산 다대포 해변공원

부산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노을 명소다. 해 지는 시간이 되면 갈대는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바다와 하늘이 새빨갳게 변한다.

5.

황금빛 노을이 번지는 땅 순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은 해가 지는 시간부터 일대가 황금색으로 천천히 빛나다가 온통 붉은색으로 번지기 시작한다. 경관을 해치는 건물이 없어 노을과 갈대, 자연, 때때로 날아오르는 철새들을 함께 눈에 담을 수 있다.

6.

산과 사찰, 섬과 바다 그리고 노을 남해 보리암

남해의 금산 정상에 있는 사찰 보리암은 기묘한 암석, 절벽과 부드러운 산맥, 푸른 바다, 크고 작은 섬으로 인해 평범한 일몰과는 다른 감동을 전해준다.



5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조성근



1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김지호



2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김지호



3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라이브스튜디오



4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라이브스튜디오



6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목영해



노을 풍경, 국내만으론 아쉽다면? 매일매일 다른 노을, 사이판 마이크로 비치

사이판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이자, 호수처럼 잔잔하고 아름다운 바다인 마이크로 비치.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해 질 무렵이면 현지 사람들이 바다에서 수영하거나 맥주를 마시며 노을을 감상한다. 젖은 백사장에 붉은빛이 번질 때쯤 하늘과 바다가 한데 섞인 듯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다.

가면 증후군(Imposter Syndrome)은 자신의 성공과 명성이 우연에 의해 이뤄졌으며 자신이 가면을 쓰고 남들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언젠가는 부족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말 것이라는 불안감이 가면 증후군의 핵심적 증상이다. 삶의 여러 방면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직장에서 달성한 성과가 자신의 능력보다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나,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흔하다.

혹시 내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면 증후군 체크리스트		Check
1	나의 현재 직위나 성취가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2	나의 능력, 재능, 업적 등에 대한 칭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때 앞으로도 계속 성공을 반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
4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두렵고, 가능하면 평가받는 상황을 피한다.	☐
5	내가 한 일에 대해 칭찬받을 때 앞으로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렵다.	☐
6	내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남이 알아챌까 두렵다.	☐
7	내가 한 일에 대해 칭찬받으면 그 일의 중요성을 일부러 과소평가한다.	☐
8	내 능력을 주변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들이 나보다 더 똑똑할 거라고 생각한다.	☐

* Clance IP scale에서 일부 발췌.

직장인 A씨의 사례

직장인 A씨는 조직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친절하고 일 처리도 깔끔해서 모두 A씨를 좋아한다. 하지만 A씨는 학벌도, 능력도 시원치 않은 자신이 이 회사에 입사한 것부터가 단지 운때가 맞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왠지 모르게 동료가 쓴 보고서가 더 좋아 보이고,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더 빠르고 쉽게 처리하는 것 같아 좌절감을 느낀다. 요즘 들어 A씨는 어렵게 입사한 현재 회사를 포기하고 차라리 공장에서 단순노동을 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

가면 증후군의 유형

 완벽주의자 완벽주의자는 스스로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자책감과 자기회의를 빠진다. 완벽하게 하지 않은 모든 일은 실패라고 생각한다.	 재능만능주의 타고난 재능만이 진짜라고 생각한다. 긴 시간 노력해서 이론 성취는 별 볼 일 없거나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고, 빠르고 쉽게 일을 척척 처리해야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다.	 독립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남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잘 모르는 일을 물어보는 행동은 나에게 능력 없음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전문가 항상 맡은 분야의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다 느끼고 전문적 역량이 없는 사람으로 비칠까 봐 두려워한다.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몰두하지만, 그 때문에 일을 미루곤 한다.
---	--	---	---

왜 가면 증후군이 생길까?

어린 시절 억압적이거나 과보호하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가면 증후군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부모 스스로 과도하게 목표 지향적이거나 자녀에게 성과를 강요한다면 아이는 목표를 성취해도 어딘가 부족하다 느끼게 된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역할은 가면 증후군의 트리거로 작용한다. 누구나 처음 해보는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서 나만 소외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하다.

가면 증후군에 빠지기 쉬운 성격유형도 존재한다. 완벽주의적 성격은 성공 아니면 실패의 이분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한 일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신경증적 성격은 불안, 긴장,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 특히 민감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역시 가면 증후군에 취약한 성격이다.

가면 증후군 극복하기

아무리 바빠도 때로는 하는 일을 멈추고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불안에 휩쓸려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다 보면 문제를 인식조차 못하게 된다. 내가 현재 어떤 상태이며 그에 대한 내 생각은 무엇인지, 그 생각은 나에게 어떤 감정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습관을 지녀보자. 자신의 장단점, 성취와 아쉬움을 균형 있게 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유의할 점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머릿속 생각은 곧잘 부정의 늪으로 빠지곤 한다. 막연한 상념보다는 종이에 적으며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거나 동료와의 대화, 상담 등을 통해 피드백을 받는 것이 나은 방법이다.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도 재고해야 한다. 나의 비교 대상은 항상 과거의 나임을 명심하자. 하루하루 조금 더 나은 모습의 내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사랑하는 마음들, 떠나보내야 하는

마음들



책,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삶에
유용한 영감과 지혜를 얻는 한전인의 'Talk' 시간.
강원본부 및 철원지사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자세를 다룬
영화 <원더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PANEL

정혜인 대리 • 강원본부 재무자재부

모처럼 흥미가 생긴 운동이 수영이라는 정혜인 대리. 개봉 전부터 궁금했던 영화 <원더랜드>를 좋은 기회로 관람할 수 있어 행운이었다고 한다. 자신의 감상평이 사보에 남겨질 생각에 걱정되지만, 그만큼 설레기도 한다고.

김성준 사원 • 강원본부 경영지원부

취업 전에는 영화를 자주 봤지만, 근래 여유가 되지 않아 영화관에 갈 일이 별로 없었던 김성준 사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좋은 영화를 감상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특히 독립적이면서도 한 편의 이야기로 연결된다는 게 인상적이었다.

김기영 사원 • 철원지사 전력공급팀

김기영 사원은 평소 영화를 보고 난 후 감상평을 나누는 것을 즐기는 편으로, 철원에는 영화관이 몇 없어 아쉽다. 영화 <만추>, <가족의 탄생> 등을 연출한 김태용 감독의 13년 만의 신작 소식에 들뜬 기분으로 이번 코너에 참여했다.

박소연 사원 • 철원지사 고객지원팀

헬스를 하다 러닝으로 퇴근 후 운동하고 있는 박소연 사원은 근처 중학교 운동장에서 밤바람을 맞으며 한참 뛰다 보면 시원한 기분에 몸과 마음이 건강해짐을 느낀다고 한다. 한 번쯤 사보에 참여하고 싶어 이번 'TALK'에 신청하게 됐다.

최재훈 사원 • 철원지사 전력공급팀

같은 지사에 근무하는 분들과 같이 영화를 보면서 친목 도모한 기회가 되어 좋았다는 최재훈 사원. 평소 영화를 즐겨 보는 편이다 보니 이번 코너에 참여하게 되어 기쁜 마음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정혜인 정인(수지)과 태주(박보검)의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다른 에피소드의 인물들과 다르게 태주는 죽은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오랜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후 예전 같지 않은 현실의 태주와 과거의 밝은 모습을 한 가상현실의 태주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정인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대사가 또렷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태주가 정인에게 왜 나를 우주로 보냈냐고 물었을 때, 정인이 “네가 가장 먼 곳에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이 우주였어”라고 대답했거든요. 죽지는 않았으나, 현실에 없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연인이 저 멀리 우주에 있는 것처럼 멀게 생각한 것 같아 안타까웠고, 또 어쩌면 태주가 아닌 정인의 마음이 우주 속에 홀로 있던 태주처럼 외로웠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Life is but a dream.



“
김성준 ‘원더랜드’라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소중한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극 중 인물인 바이리(탕웨이)가 시스템의 한계를 벗어나 다른 세계로 가서 딸과 같은 장소에 도달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요. 그러면서 딸과 그의 어머니를 위로하는 모습에서 감명받았습니다.”

진짜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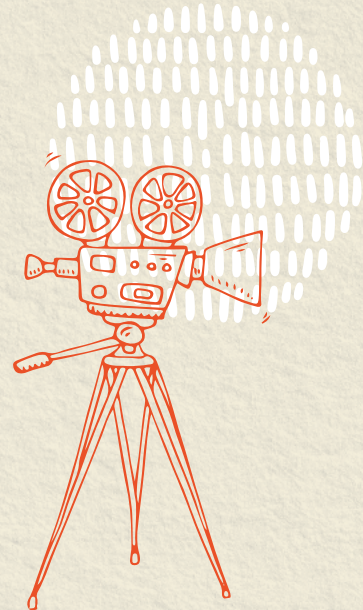
“
김기영 기존의 김태용 감독의 작품들처럼 <원더랜드>에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풍부하게 담겨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근 미래의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캐릭터를 통해 감정선과 서사를 풀어가는 방식이 매우 흥미로웠고요. 저 역시 정인과 태주의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큰 사고를 당한 후 성격이 변해버린 채로 깨어난 태주와, 데이터로 구현한 AI 태주의 간극에서 갈등하는 정인의 연기가 매우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라고 믿었던 게 가짜로 되는 건 한순간이야.
 1초도 안 걸려.**



“
박 소 연 조만간 ‘원더랜드’와 비슷한 기술력이 공급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죽은 손자를 원더랜드로 구현한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힘들게 일하며 아이템을 구해 주지만, 계속해서 바라는 것만 커지는 손자가 할머니를 점점 귀찮아하는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던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더랜드가 공급되면 돌아가신 할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예전처럼 할머니의 옛날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꿈속**에 있는 거예요.
 즐겁게 즐겁게 **인생은 그냥 꿈**이에요.



“
최 재 훈 확실히 죽지 않았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던 태주와 시로 구현한 태주 사이의 괴리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던 정인이 공감이 많이 됐는데요. 원더랜드라는 기술이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이를 추억하고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별을 부정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시를 사용함에 있어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곳**,
 거기에 **네가 있는 것** 같았거든.

“
정혜인 영화 <원더랜드>의 인물들처럼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과 이별한 적은 없지만, 이별이라는 게 모든 관계에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인연이나 관계의 형태는 모두 다 다르겠지만, 어찌 됐건 이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인연이든 관계든 어느 정도의 덤덤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별의 순간이 지나면 현실을 마주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별의 슬픔에 매몰되면 삶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땐 참 좋았었지’ 하면서 좋았던 기억만 담아놓고 털어낼 수 있는 담담한 자세를 기르고 싶습니다.”

오래 있을 건가요? **당신과 같아요**,
 무슨 말인 줄 알죠?

“

김성준 이별에는 결국 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별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힘들겠지만, 특히나 남겨지게 되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더랜드>를 추천하고 싶어요. 결국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니터 너머의 사랑하는 사람(AI)을 일상에 들이게 되는데,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나 불편함, 실제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는지조차도 의심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끝난 관계를 이어가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싶었어요.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같은 시간을 보내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내가 죽었다는 걸, 내가 모른다는 거죠?

“

김기영 이별은 하나의 세상이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갯벌과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떠나간 연인이 주고 간 맛집 리스트, 추천해 준 취향 저격 영화들이 조개껍데기 같은 흔적들을 남기고 빠져나가면, 가끔은 갯벌에 앉아 그 사람과 함께한 무언가를 추억하듯이 그때의 맛집을 다시 찾아가 보기도 하고 취저 영화의 감독이 만든 신작 영화를 찾아보며 ‘그땐 그랬었지’ 하고 추억하는 게 이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만큼 영원한 이별에 대처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역설적이지만, 영원한 사랑에 대한 믿음 아닐까요? 쌓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영원하다는 태도로 사랑에 임한다면, 헤어진 후에도 함께했던 추억만큼은 소중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네가 어떻게 돌아와!

“

박소연 저에게 이별이라 함은 ‘낙화’라는 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슬프지만 극복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죠. 이별은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해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



내 말 들려요?

“

최재훈 인간에게 내려진 여러 가지 축복 중 하나가 ‘망각’이라고 합니다. 가슴이 미어질 듯한 이별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기억들과 희석되어 흐려지듯, 소중한 존재와 이별을 마주했을 때 당연히 버티기 힘들겠지요.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 있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그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자력으로
승리를
거머쥘
거려주시다!



직장인 월드컵이라 불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배 축구대회는 유관기관 간의 화합 도모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1993년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과거 참가 명단에서 제외된 이후 오랫동안 참가하지 못했다. 재참가를 위한 전현직 총무진들과 동호회원들의 수년간 노력 끝에 올해 대회부터 참여할 수 있었다.

KEPCO FC



류재민 대리가
가장 좋아한다고
밝힌 산업부대회
단합 사진.

WIN KEPCO, 20년의 한을 풀다

이번 대회 우승은 우리 회사가 20년간 쌓았던 한을 풀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틀간 진행된 총 7경기(예선 3경기, 토너먼트 4경기)를 전승으로 마무리한 것. 골득실 기록은 무려 21득점 1실점으로, 결승에서 단 1골만 실점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경기를 무실점으로 끌고 왔다. 우리는 예선 2경기 만에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 지으면서, 마지막 경기 전 상대 감독이 우리 감독인 문선수 대리에게 쉬엄쉬엄 하라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폐막식에서는 대회 우승컵을 포함하여 최우수 감독(문선수 대리), 최우수 선수(안중혁 대리)로 선정되어 우리 회사가 총 3개의 트로피를 차지했다.

나이, 직급 불문 KEPCO FC

월드컵 때 온 국민이 하나가 되듯이 축구는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다. KEPCO FC도 마찬가지로, 회사 동호회지만 나이와 직급을 불문하고 축구로 하나가 되는 매력이 있다. 축구가 아니었다면 접점이 없었을 차장, 부장

님들과 인연이 되어 운동장 밖에서는 친구처럼 축구 이야기를 하고, 경기 중에는 '함께' 골을 만들어가고, '협력'하여 수비하는 과정들이 이 팀, 더 나아가 회사에서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해준다. 축구를 하면서 개개인들이 본인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한 팀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 정해진 포지션에서 누가 알아봐 주지 않더라도 꾸준히 열심히 하면 팀의 성과로 이어졌다. 이를 회사 생활에 대입해 봐도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함께 나아가는 KEPCO

선발, 후보 명단 구분 없이 다 같이 몸을 풀고, 모든 경기 시작 전, 하프타임, 경기 끝난 후 전부 둥글게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계속해서 팀의 목표를 상기하였다. 누군가 다시 나에게 자신 있냐고 물어본다면 KEPCO FC, 우리 한전은 꼭 해낼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KEPCO FC는 매주 화요일마다 나주혁신구장에서 훈련과 자체 경기를 진행한다. 나주로 본사 소재지를 옮긴 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역사가 깊은 동호회다. 현재 본사에 계신 분들, 본사를 거쳐 가신 분들, 지역본부에 계신 분들 모두 기회가 된다면 함께 땀 흘리기 바라며, 회사 생활의 '활력소'로 동호회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Victory



미래도시의 풍경 속으로,

송도국제도시 &
인천본부 남인천지사



독특한 스카이라인을 그리는 마천루들이 미래도시의 어느 거리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곳은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다. 송도국제도시는 국제기구와 국제학교, 해외대학의 캠퍼스 등이 들어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최첨단 건축기법으로 지어진 다양한 외관을 자랑하는 빌딩 숲 한가운데는 싱그러운 자연 속 휴식을 제공하는 센트럴파크가 자리해 있다.

도심 속 녹지 숲, 송도센트럴파크

송도센트럴파크는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도심 속 대형녹지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조성되었다고 하며, 국내 최초로 바닷물을 정화해 끌어들여 수로에 공급하는 해수공원이라 한다. 수변공원에는 다양한 콘셉트의 산책로를 잘 조성해 놓아 지루하지 않게 산책이나 조깅을 즐길 수 있다. 수로에서는 보트나 카약 등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미래적인 건축미를 과시하는 건축물로 트라이볼을 꼽을 수 있다. 예술적 조형미를 물씬 풍기는 디자인은 주변 자연과 어우러져 운치를 자아낸다.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며 다양한 전시 공연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송도센트럴파크는 야경으로도 유명하다. 마천루의 불빛이 센트럴파크의 수면 위에 떨어져 반짝이는 풍경은 낭만적인 정취를 일으킨다. 울여름 특색 있는 추억을 원한다면 송도에 들러보아도 좋겠다.



송도국제도시의 한가운데 자리한
센트럴파크의 이국적인 전경.



예술적인 조형미를 과시하는
송도의 명물, 트라이볼.

안전경영활동평가
우수 사업소로 선정된
인천본부 남인천지사.



안전경영활동평가 우수사업소 선정에 빛나는 인천본부 남인천지사

송도가 속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남동구의 전력을 관할하는 인천본부 남인천 지사는 지난해 안전경영활동평가 우수 사업소로 선정됐다. 이는 지사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 결과다.

우선 인천본부 남인천지사는 위험 표지판 지상설치용 간접활선 조작봉을 개발하여 본부별 안전 우수과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AMI 검정만료 등에 따른 저압용 계기 교체 시 전선 절연캡 도입으로 사업소 안전 경영활동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편, AI로 이상 징후 감지하는 1인 가구 돌봄 서비스를 시행해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휴전작업 캠페인 안전 홍보영상을 구청 전광판을 활용해 영상을 송출하며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기여했다.

올해 3월에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2024년 인천본부 판매사업소 최초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취득하였으며, 4월에는 2차 사업소 우수사업장 인정 취득 지원을 위한 Know-How 컨설팅을 시행했다. 인천본부 남인천지사는 이처럼 안전 경영활동과 안전문화 정착에 역점을 두고 안전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압용 계기교체 시
전선 절연캡을 도입한
인천본부 남인천지사.



위험표지판 지상설치용
간접활선 조작봉을 개발하여
본부별 안전 우수과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서

신송전사업처 김정용 차장



한 해의 절반이 남은 7월,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남은 한 해를 다짐하기 좋은 시간이다. 여름휴가를 떠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돌아온다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 더할 나위 없을 터. 한전의 새로운 시작과 같은 사업인 HVDC를 담당하는 신송전사업처의 김정용 차장. 푸른 배경색과 어울리는 청춘의 얼굴을 하고 카메라 앞에 선 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자.

청량한 여름의 빛을 표현하다

때이른 더위가 불쑥 찾아온 6월의 어느 날, 환한 햇살이 쏟아지는 순백의 스튜디오 안으로 김정용 차장이 들어온다. 쑥스러운 듯한 미소를 띤 그의 등장에 모두의 이목이 쏠린 이유는 그가 오늘의 주인공인 7월호 표지모델이기 때문이다. “아침에 정신없이 오느라 몰랐는데 헤어, 메이크업을 받으니까 점점 긴장이 되네요.”

걱정과는 달리 서터움에 맞춰 다양한 포즈를 여유있게 소화해 모두의 감탄을 자아낸다. 바다를 닮은 배경색과 어울리는 하얀색 셔츠를 입어 더욱 청량한 이미지가 연출된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정말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다른 사우분들께도 꼭 추천하고 싶어요.”

NEW



Transmission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다

신송전사업처는 초고압 직류송전기술인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를 총괄하는 처로 HVDC 설비 건설과 운영, 기술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육지와 제주를 잇는 제주-해남 간 제1연계 선로를 시작으로 최근 북당진~고덕HVDC까지 총 3개의 HVDC 사업이 운영 중이다. 현재는 동해안~수도권HVDC, 제주#3HVDC를 건설 중이다.

동해안~수도권HVDC 건설사업은 동해안의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는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현재 동해안에 송전선로가 부족해 발생하는 발전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는 한전에서 시행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사업인 만큼 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 커져가는 글로벌 HVDC 시장에 발맞춰 국내 HVDC 기술 개발을 위해 해외 선진사와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기술이전, 산학연 협력 국책과제를 통한 기술자립 및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사업을 기반으로 HVDC 국산화 및 신사업 기반을 조성하여, 국내 제작사의 사업실적(Track-Record) 확보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대학과의 협력 및 워크숍 등을 통해 HVDC 관련 인재 양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기술개발과 사업실적이 쌓여 머지않은 미래에 한전, 제작사 등으로 구성된 Team Korea가 글로벌 해외시장에서 대규모 HVDC 사업을 수주하여 건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신기술과 해외시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고 기존에 없던 기준을 정립해 나가는 일이 많아서 막막하기도 하지만, 아무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분야를 도전한다는 것이 보람합니다.” 승진 2년 차 차장인 그는 어려운 업무를 같이 이겨내는 직원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이 든다고. “처음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업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차장님, 부장님, 부서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렘과 기대, 걱정과 불안을 모두 담고 있는 ‘시작’,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단어가 아닐까. 남은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바라보니, 올해가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신송전사업처, 김정용 차장,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늘 응원한다.



사천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다! 우리 지사는 삼천포 해안가를 청소해, 해양쓰레기로 인한 어자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 뜨거운 햇볕 탓에 구슬땀을 흘렸지만 깨끗해진 바다를 보면서 마음도 정화되는 기분이었다.

#사천시 #해양쓰레기수거활동 #삼천포_해안가
#깨끗한_바다를_위해 #청량한_푸른빛

구리지사



우리 지사는 구리의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에서 플로깅을 시행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시행해 왔다. 깨끗해진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니 뿌듯했다. 앞으로도 푸른 자연의 빛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구리지사 #플로깅 #동구릉 #세계문화유산
#탄소중립 #깨끗한_자연 #푸른빛 #우리의_유산들

남서울본부



우리 본부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의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에너지 취약가구에 고효율 가전제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탄소 배출도 줄이고, 지역 상생까지! 지구와 이웃 모두 아끼고 위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남서울본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남서울에너지효율플러스 #고효율_LED_조명_교체

경기본부



우리 본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수한 학업성적으로 모범이 되는 취약계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했다. '꿈키움 장학금'은 아이들이 꿈과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본부 #꿈키움_장학금 #고등학생 #꿈과_미래
#응원하는_마음 #눈부신_청춘들

#STARGRAM

이 코너는 KEP-CNA와 KEPCO-EPRI연구소 소식에서 발췌하여
구매했습니다. 사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단양지사



농산물이 자라는 데 많은 손길과 노력이 필요한데, 인력이 부족해 시름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다. 우리 지사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마늘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우리가 먹는 농작물들이 얼마만큼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지 알게 된 하루였다. 앞으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과 함께 하는 지사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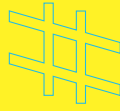
#단양지사 #마늘농가 #일손돕기 #한국인의 사랑
#나눔실천 #이웃사랑 #사회공헌 #지역상생

정선지사



정선에 거주하는 6·25 참전용사자를 대상으로 '사랑의 선물꾸러미 나눔'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선물꾸러미 안에는 이불, 화장지, 두유 등의 생필품이 들어 있다. 앞으로도 참전용사 및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할 것이다.

#정선지사 #호국보훈의달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사랑의_선물꾸러미_나눔 #나눔_실천



원고 사진 보내실 곳 eunseon.yang@kepco.co.kr
문의 061-345-3128

서울본부



내 손으로 똑딱똑딱 무언가를 만들어서 완성할 때의 만족감! 우리 본부는 직원들을 위한 가족공예 클래스를 열었다. 가족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몰입이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기분이었다. 내 손으로 만드는 나만의 명품, 앞으로 아껴서 오래도록 잘 사용해야겠다.

#서울본부 #전력관리처 #내_손으로_만드는_명품
#가족공예 #지갑_만들기 #선물 #뿌듯 #DIY

전북본부



우리 본부는 김제전력지사 ESS홍보관에서 지역 대학생 대상으로 전력설비 견학과 멘토링 활동을 진행했다. ESS 변전소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VR 기기를 통한 안전체험활동도 진행했다. 한전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도 제공한 알찬 시간이었다.

#전북본부 #김제전력지사 #ESS홍보관
#지역대학생_멘토링 #전력설비_견학 #알찬_하루

KEPCO NEWS

2024. 07

한컴과 AI 활용·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전은 한글과컴퓨터와 6월 20일 경기도 성남시 한컴타워에서 인공지능(AI) 활용·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과 한컴은 AI의 보급·확산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문서작성 서비스, 전력 특화 검색 서비스 등 한전 업무환경에 맞는 생성형 AI 기반의 사무용 소프트웨어인 한컴AI를 공기업 최초로 시범 도입해 업무 효율화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추진한다.

앞으로 한전은 AI 기반 문서작성 도구인 '한컴 어시스턴트(Assistant)'를 활용해 자연어 명령으로 각종 보고서 초안 생성·편집·교정 등을 가능하게 하여 문서작성 업무를 효율화하고, AI 기반 질의응답 솔루션인 '한컴 피디아(Pedia)'를 통해 한전에 축적된 방대한 내부 데이터를 활용한 검색·질의응답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345kV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한전 송변전건설단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에 걸쳐 추진했던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조성을 위한 '345kV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6월 21일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는 첨단산업의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지난해 7월 정부가 지정한 전국 특화단지 7곳 중 1곳으로서, 7곳의 전체 투자비 614조 원 중 무려 92%인 562조 원이 투입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 지역이다.

이러한 첨단 반도체 산업은 안정적인 전력인프라 구축이 핵심인데,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의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풍부한 동해안과 호남지역에서 용인 지역까지, 3조 7천억 원을 투자하여 총길이 1,153km인 14개

의 345kV 송전선로를 새롭게 건설해야 한다.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길이가 길고, 국토 전반에 걸쳐 경유하는 지자체가 많은 만큼, 지자체와 주민 민원 협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기재부와 산업부 등 정부 부처 설득과 협의를 통해 전력설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만큼, 예타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과 행정력, 예산 절감이 기대되는 등 향후 신속한 사업추진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초실감 안전 훈련시스템'으로 AWE 2024 최고기술상 수상

한전은 6월 18일~20일 미국 롱비치에서 개최된 AWE 2024에서 '초실감 안전 훈련 시스템'으로 'Auggie Awards' 최고기술상을 수상했다.

AWE(Augmented World EXPO)는 VR, AR, AI 및 Wearable 기술 분야의 세계 최대 규모 엑스포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퀄컴 등 5천여 개 기업과 6만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최첨단 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하는 행사다.

Auggie Awards는 메타버스 분야의 우수기술을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한전은 교육훈련 솔루션 분야에서 52개 기업과 경쟁을 펼친 끝에 1위인 최고기술상의 영예를 안았다.

초실감 안전 훈련시스템은 센서, 시뮬레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작업 현장과 유사한 가상환경에서 감전, 추락 등의 위험 행동을 추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작업자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한전은 초실감 안전 훈련시스템을 활용한 가상 훈련장을 인재개발원에 세계 최초로 구축 중이며 9월부터 교육에 착수할 예정이다. 교육시설 완공 시, 연간 360명의 전사 직원이 안전교육을 수료할 수 있다.



한전-모잠비크전력청 간 송배전·에너지신사업 분야 협력 MOU 체결

한전은 6월 5일 서울본부에서 모잠비크전력청과 송배전·신사업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전과 모잠비크전력청은 송배전망 건설·운영 및 HVDC, 자동원격검침, AI 기술 등 에너지 신사업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교육, 실증사업 등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모잠비크는 에너지 전환 전략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자국 내 전기보급률을 향상시키고 국내외 에너지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전은 이번 MOU를 계기로 모잠비크전력청과 공동 사업개발 아이템을 선정하고, 타당성조사 및 실증사업을 통해 사업성을 검토한 이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英 원전산업계와 대형원전사업 협력기반 강화

한전은 6월 12~14일 한국 원전시설 견학을 위해 방한한 영국 원전산업계 14개 기업대표단과 영국 신규 원전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영국 원전산업계의 방한은 영국 정부의 강력한 원전 확대 정책에 발맞추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영국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영국은 올해 1월, 현재 6GW 규모인 원전을 2050년까지 24GW로 확대한다는 원자력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5월 영국 서부 지역에 차기 대형원전 부지를 선정하였다. 또한, 영국 정부는 현재 신규 원전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정책을 수립 중으로 올해 안으로 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영국 정부가 현실적이고 사업자 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영국 정부와 긴밀한 대화를 진행해 왔다.

영국 방문단 일행은 APR1400 건설 현장 및 운영 원전 견학을 시작으로 창원에 소재한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원자로 제작 공장을 둘러보았으며, 원전 설계, 기자재 제작, 시공 등 분야별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과 개별 회의를 갖고, 영국 신규 원전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한전은 영국 방문단과 종합점검회의를 통해 한전의 사업관리 능력과 한국형 원전의 강점을 홍보하고, 한전이 영국 신규 원전사업 추진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한전은 2023년 11월 영국 국민 방문 기간 중 한영 원자력산업계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영국 원전산업계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논의가 한층 더 구체화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전이 영국 원전시장에 진출할 경우 1950년대에 최초의 상용원전을 운영한 원전 종주국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게 되는 쾌거가 될 것이며, 앞으로 한전은 철저한 사전 리스크 분석 및 수익성 확인 후 영국 원전사업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이 제안한 MVDC 기술, IEC 백서 주제 선정

한전이 제안한 중전압직류(MVDC) 기술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미래기술 백서로 선정됐다. 6월 17일, IEC 시장전략이사회(MSB)는 김태균 기술혁신본부장이 제안한 MVDC 기술이 2025년 IEC White paper 주제로 선정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투표에는 한전을 비롯한 중국 하이얼(Haier), 중국 국가전망(SGCC) 등 3개 후보가 경쟁한 끝에 한전의 '중전압 직류 기술'이 선정되었다.

2020년 한전이 제안한 양자정보기술이 당시 한국 최초로 IEC 백서로 선정된 이래, 한전은 두 번째 백서 선정의 성과를 내었고, 이는 우리의 기술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자, 국제표준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드높인 쾌거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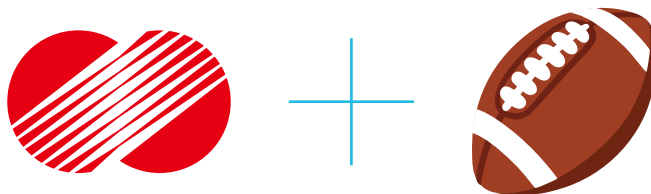
이모지 난센스 qui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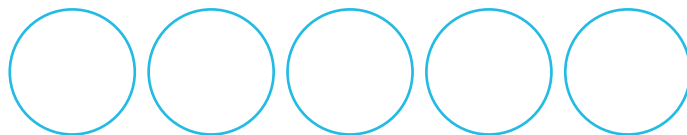
퀴즈 및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들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Hint. 8~9쪽 'ESSENTIAL KEPCO'의
Part 3에 나온 스포츠 구단은?(5글자)

다음 이모지를 보고 정답을 맞춰 주세요!



정답



02 — 퀴즈 당첨자 및 설문조사 참여자

김*곤(2420)	서*택(4527)	전*희(2604)	구*기(7987)	조*성(3350)
백*엽(2336)	백*주(3039)	유*윤(3091)	심*희(5476)	이*훈(1017)
박*민(5909)	신*주(8131)	박*훈(8867)	김*우(4441)	김*혁(0833)
한*빈(5741)	노*동(1492)	서*덕(0685)	손*현(8429)	오*병(1690)
이*희(2134)	김*호(4887)	김*선(9606)	김*동(2674)	양*혜(5916)
정*재(9725)	채*만(6749)	윤*돈(1669)	오*아(5592)	남*라(0208)

03 — 지난호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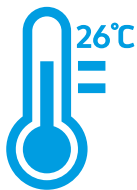


전

기

카

트



에어컨 온도 1도 ↑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 26도)
월 2,138원



**고효율 조명 사용하고
안쓰는 조명 끄기**
월 4,693원



**안쓰는 제품
플러그 뽑기**
월 1,668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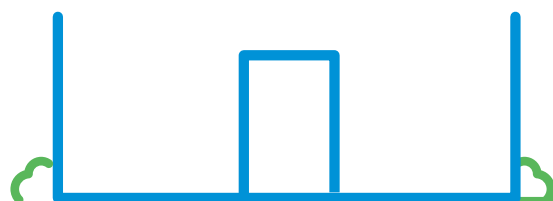
샤워시간 1분 ↓
월 1,333원



샤워 중 물 잠그기(비누칠 등)
월 4,000원



**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당신의 에너지센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월 5,631원



대중교통 이용
월 69,01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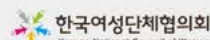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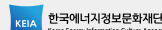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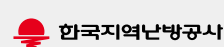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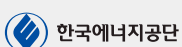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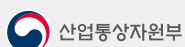
1등급 전기차 타기
월 68,672원



1등급 타이어 사용
월 14,018원



적정 공기압 유지
월 5,077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는
2024 KEPCO의 자기소개서



나는 [**호수**] 이다

나 자신에게는 내면의 차분함을, 다른 이들에게는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변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을 가지고
‘너와 함께라면 든든하고 편안해’라는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철탑 설계 과정에서는 부재의 하중 검토가 있습니다. 하나의 부재라도
휘어지게 된다면 주변의 부재가 힘을 못 받고, 철탑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데요. 현재 위기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서로를 믿고 결속하여
버텨낼 수 있도록, 직원들의 사기와 의지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신송전사업처 신송전기술부 김정용 차장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